

“노동자 입을 막고, 투쟁을 멈추라는 판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2년 51일 파업투쟁 형사재판 1심 선고 ... 28명에 징역 16년 2개월, 집행유예 28년, 벌금 3천1백만원

법원이 2022년 여름 진행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51일 파업투쟁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대거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 단독은 19일 오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8명에게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 원, 유취안 조합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2년과 집행유예 2~3년, 벌금 100~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개인 이익보다 하청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여전히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했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형수 지회장은 “(51일 파업 투쟁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를 분배하지 않으려 하는 세상에 맞선 투쟁이었다. 바뀌어야 한다. 법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라며, 항소 의지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유취안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통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고, 이는 헌법적 권리이자 보편적 권리”라며, “사법부는 권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히며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지적했다.

김일식 경남지부장은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를 두고 사측과 입장을 같이하는 검찰측 주장 대부분은 인용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에 항소해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로 이어진 파업 불법 개입을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이 두 번이나 반헌법적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반드시 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고용승계 희망 품고 구미에서 평택까지 걸었습니다”

금속노조, 23일 ‘유틸칼 희망뚜벅이’ 니토유틸칼 평택공장 앞 문화제 열어

“니토는 유틸칼 노동자 7명 하루빨리 고용승계하라”

“떡튀 자본 니토덴코는 유틸칼 노동자에게 사과하라”

“단결과 연대로 유틸칼 투쟁 승리하자”

금속노조와 ‘한국유틸칼 고용승계로 가는 희망뚜벅이’가 23일 오후 경기 평택 한국니토유틸칼 공장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니토덴코 자본에 한국유틸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도보 행진 17일째를 맞은 유틸칼 희망뚜벅이는 이날 평택역에서 평택 니토유틸칼 공장까지 걸었다.

유틸칼 희망뚜벅이는 지난 3일 구미 한국유틸칼하이테크 농성장을 출발해 서울 국회를 향해 걷는다. 이번 희망뚜벅이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과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제안으로 시작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유틸칼 노동자 7명 고용승계와 외국인 투자기업 떡튀 제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3월 1일 서울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화제에서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김진숙, 박문진 선배님께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 오늘 평택역에서 이곳 니토유틸칼 공장까지 걸으며 그동안 금속노조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반성했다”라며 “400일 넘게 불탄 유틸칼 공장 옥상에 올라가 있는 박정혜, 소현숙 두 조합원이 하루빨리 땅을 밟을 수 있게 금속노조가 더 힘차게 투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노조 구미지부 한국유틸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소현숙 조합원과 전화 연결도 했다. 유틸칼지회 조합원들 모두 희망뚜벅이 참가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현환 한국유틸칼지회장은 “연대와 응원이 있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고용승계 희망을 품고 구미에서 걷기 시작했다. 유틸칼지회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 7명 모두 여기 니토유틸칼로 고용 승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일본자본 니토덴코 자회사인 한국유틸칼하이테크 사측은 2022년 10월 공장 화재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니토덴코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유틸칼이 한국유틸칼 기존 물량을 모두 가져갔다. 해고자 7명이 남아 니토유틸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

